

"4월9일 꼭 투표해서 물같이 해 달라"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3.24 23:01

민주노동당 경기도 출마자들 24일 합동기자회견 열어

[사진1]

민주노동당 경기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24일 오전11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민노당 경기지역 출마자들은 총22명이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출마자는 이성윤(수원권선) 후보 조준호(화성갑) 후보 이시내(안양만안) 후보 등 총10여 명이다.

천영세 당대표는 "정당정치 무너지고 정치 불신 팽배해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오만한 태도로 계파정치 당권투쟁 벌이기 때문이고 이런 막가파식 정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공약도 없고 정책도 사라졌지만 경기도민은 기권하지 말고 4월 9일 꼭 투표해서 물같이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지역구 10석, 비례 10석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 탄생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준호(화성갑) 후보는 "경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희망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당선돼서 경기도를 우리나라 변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이성윤(수원 권선구) 후보는 "권선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70대 이상 모두 난청이고 비행장 문제(는) 이젠 좀 바뀌야 한다"며 "비행장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경기도당 출마자들은 "편안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푸른 경기도, 정말 살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 것"을 결의하고 "민생정당, 평화정당, 정책정당 만들어 서민을 위한 진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보들은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정치개혁 완수하고 한반도평화 실현해 국방비 줄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 확충을 이뤄 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경기지역은 18대 총선을 통해 '▲국방비 감축분 복지예산 전환 ▲군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국방예산 매년 30조원 감축(2020년까지 398조원 절감) 및 복지예산 전환'을 첫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이어 두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임기 내 300만 고용창출 및 300만 고용유지 ▲4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1천만 고용안정 달성'을, 세 번째 공약으로 ▲학 평준화와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 ▲국공립대 평준화와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시행, 대학평준화 실현 ▲1인당 연평균 소득 기준 학기당 등록금 150만원 제한'을 발표했다.

그밖에 경기지역 민주노동당 총선후보들은 '학교급식조례안 재개정과 무료급식 안전제공, 남북 접경지역 발전, 재래시장 활성화 등 총 21개 공약을 공개했다. <공동취재단=이민선기자/안양뉴스>

◆경기지역 민주노동당 총선후보 합동기자회견 전문</p></div><div data-bbox="41 910 375 927" data-label="Text"><p>[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출마의 변]</p></div><div data-bbox="41 946 302 963" data-label="Text"><p>서민을 위한 진짜 야당이 되겠습니다.</p></div>

민생정당, 평화정당, 정책정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2명의 민주노동당 경기지역 총선출마자들은 서민들을 대변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800만 명의 소중한 국민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에 묶여 대자본의 고삐가 춤추는 대로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광염에 걸리도록 쉬지 않고 일했던 이랜드 아줌마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수십만 휴학생들의 청춘이 천만 원 등록금에 짓눌린 채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시간당 4천 원짜리 아르바이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청에 울며겨자먹기로 버티다가, 그마저 끊기면 도리 없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재개발과 대형마트 때문에 거의 사라져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을 지경입니다. 가족을 조르거나, 퇴직금을 털어 고리대 대출까지 끌어모아 식당이라도 차리면, 그 중 70%는 2년 안에 망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뽀뽀스럽게 이 생지옥을 ‘국민 성공시대, 국민 행복시대’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무능은 용서 못 한다’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갖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온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떠도는 ‘고소영 S라인 인수위, 강부자 내각, 강금실 비서실’이라는 신조어 속에는 국민들의 자조와 배신감이 베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한나라당 깃발만 들면 당선이라는 거만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특권층만을 위한 불도저식 기업정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한탄과 후회는 울분과 심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가, 분단의 유산을 청산하고 서울의 변방이라는 소외감을 떨쳐 버리고, 앞으로도 천년 이상을 골고루 발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후대에 물려줘도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민생과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짙어지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63%에 달합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한다고 농민에게 농토를 빼앗았던 평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정부와 군대, 미군 당국이 지난 반세기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적 몸부림을 어떻게 초헌법적으로 탄압해왔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경기 지역의 상처는 이뿐이 아닙니다. 마치 ‘수도권’이라는 천형(天刑)을 받은 듯, 팔당지역 7개 시·군 180만 주민들은 23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 고향집도 수장시키고, 조상의 묘지도 파헤쳤습니다. 젊은이들은 돈벌이를 찾아 떠나버리고, 이제는 거의 노인들만 남은 채, 낙후지역이라는 낙인과 오명만을 품고 한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버블세븐지역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을버스와 전철, 다시 버스를 갈아타며 날마다 파김치가 되도록 직장이며, 학교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낱알이 녹지가 황폐해져 가는데, 그 와중에 자고나면 부자들을 위한 골프장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자체와 개발이익에 눈이 먼 건설업자는 공원은커녕, 학교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채 집장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보건소와 놀이방, 도서관은 물론,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토막살인사건 마저 끊이지 않아 아이들과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경기도가 아니라 편안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푸른 경기도, 정말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2명의 출마자들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이 땅의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무엇보다 국민여러분, 도민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통령결선투표제와 정부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한반도평화를 실현하여 국방비를 줄여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의 확충을 이뤄내겠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을 연평균가계소득을 고려하여 학기당 150만원으로 낮추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연간 50%가 넘는 고리대사채에 대한 범국민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서민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에서 분단의 질곡을 부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만들겠습니다. 한강상류 주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물장사를 하려는 대자본과 외국자본의 시도를 막아내고, 물의 풍요로움을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투기공화국, 토건공화국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난개발을 제한하고, 청계천 식의 거대한 시멘트 어항이 아니라 진정한 생태하천에서 아이들이 맘 놓고 뛰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경기도민여러분, 오는 4월 9일 자기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허황된 '국민 성공시대'의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노동당을 서민을 위한 진짜 야당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민생정당, 평화정당, 정책정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민주노동당 경기지역 총선출마자 올림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